

투데이

광주 실질 경제성장률 8% 7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

지난해 광주시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지역소득'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명목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4조 4281억원으로 전년 22조 661억원보다 2조 362억 원이 증가해 10.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광주시 실질 경제성장률은 8.0%로, 전국 평균 5.9%를 웃돌았다. 특별·광역시 실질 경제성장률은 ▲인천(7.7%) ▲대구(7.2%)

▲부산(4.7%) ▲대전(6.6%) ▲울산(3.6%) ▲서울(2.1%) 순으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높았다.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충남(12.4%)과

경기도(9.2%)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등의 부진에도 생산과 수출의 증가와 함께 국내외 투자 유치 등으로 제조업·도소매업 등이 호조를 보여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을 26.1%는 경기도(27.4%) 다음으로 높아 향후 성장 잠재 가능성과 역동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광주 경제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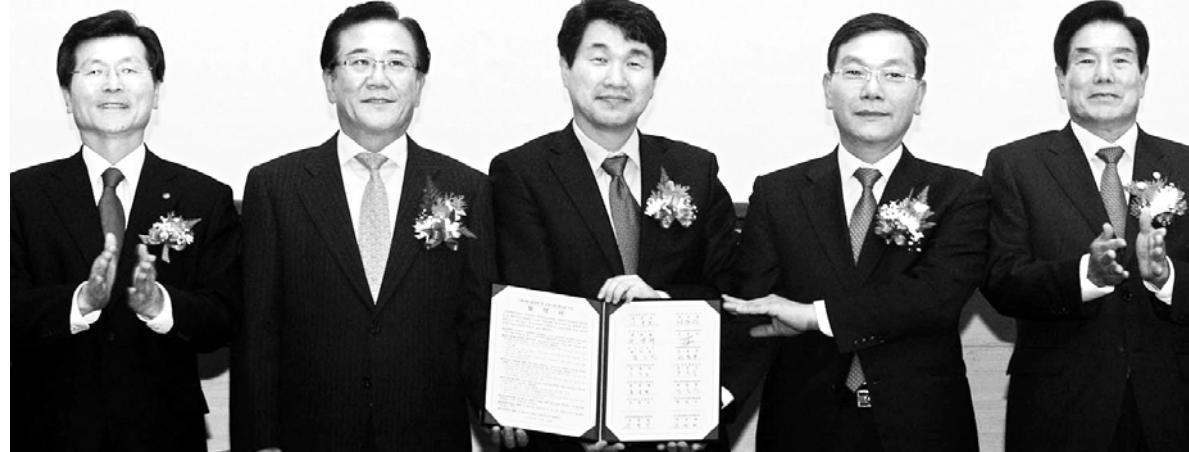
광주의 지난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684만원으로 전년의 1523만원에 비해 161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대구의 1493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부산(1765만원)과 대전(1758만원)에는 못 미쳤다.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의 증가와 함께 생산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비중은 6.1%→5.0%로 감소했으나, 제조업의 비중은 23.8%→27.0%로 전년보다 증가해 향후 생산도시로의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로 지역 총생산의 순위는 다소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구조의 확대를 통한 중장위권으로 진입 전망은 밝은 편으로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민체 도교육감, 주영순 전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이 21일 도청 황인실에서 '특성화고 채용활성화 및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교과부-전남도-도교육청 포함 14개 기관·기업

특성화고 채용·교육기부 활성화 힘 모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전남도 교육청, 전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14개 기관·기업은 21일 전남도청에서 특성화고 채용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준영 전남지사, 장민체 도교육감, 주영순 전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송문현 광주고용노동청장, 양봉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 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산·

학·관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초·중·고에 대한 교육 기부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특성화고 출신 공무원 특별 채용을 확대하고 기술직렬 등의 신규 채용은 특성화고 졸업자를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술직렬 9급 채용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기술직렬, 기능직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특색한다.

전남지역 기업·공공기관의 물적·

인적 자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 기부 활동과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을 컨설팅하고, 교육기부 공급자와 수요자 연계, 우수 기관에 대한 '교육기부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협약식이 끝난 뒤 목포공업고등학교를 방문, 학생·교사·학부모들과 고졸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주호 장관은 협약식이 끝난 뒤 목포공업고등학교를 방문, 학생·교사·학부모들과 고졸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사업장 관리 철저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 2백만~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대출금리 | 6%~6.5%(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사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비용 선우위 대출시 90%에서 선우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우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내부 제 642호)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빙의·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 / 학습증진
- ◆ 기억력 회복 / 주변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4천만(주기대출가능)
- ◆ 금리 - 연 5%-7.5%(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10년(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 시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과디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a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한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내부 제 540호)

'아리랑' 아시아문화전당서 상설 공연

광주시 내년 국제아리랑축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상설 공연된다.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의 증가와 함께 국내외 투자 유치 등으로 제조업·도소매업 등이 호조를 보여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광주시 실질 경제성장률은 8.0%로, 전국 평균 5.9%를 웃돌았다. 특별·광역시 실질 경제성장률은 ▲인천(7.7%) ▲대구(7.2%)

▲부산(4.7%) ▲대전(6.6%) ▲울산(3.6%) ▲서울(2.1%) 순으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높았다.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충남(12.4%)과

로 제작해 2014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상설 공연 작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관련 예산 20억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 국회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애환이 높아있고, 외국에 널리 알려진 '아리랑'을 대표 브랜드 공연으

로 공연하면 국내 관객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한 애초 방침대로 내년에 국제아리랑 축제를 열기로 했으며 격년제로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리랑을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고 국제아리랑 축제를

개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에 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하려는 데도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7월 옛 도청 별관 일부 철거 공사에 착공한다. /최권일기자 cki@

"KTX 개통 대비 역세권 개발·문화관광 육성해야"

광주시가 2014년 개통될 호남선 KTX(오송~광주)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남도관광 거점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과 문화·관광분야 등 MICE 산업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22일 '2014 KTX 개통대비 지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종합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광주발전연구원 정하숙 책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KTX 개통에 따라 지역간 접근성 개선이 높아져 광주의 문화·관광분야와 MICE(기업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exhibition)·산업 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송정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교통·쇼핑(백화점·아울렛·면세점 등)·숙박(호텔·방문자 숙소 등)·전시·컨벤션·비즈니스·유통·관광기능이 결합한 복합 관광플렉스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 및 문화공연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광주 송정역 역세권 내에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및 연구센터 등을 유치해 주변 산업단지의 교통거점으로써 기능뿐 아니라 산업지원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 산업단지의 특화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추진 전략으로 제시됐다.

주변 도시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 기능을 거점화하는 역세권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추진 전략으로 핵심화됐다.

또한,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 및 문화공연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광주 송정역 역세권 내에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및 연구센터 등을 유치해 주변 산업단지의 교통거점으로써 기능뿐 아니라 산업지원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 산업단지의 특화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추진 전략으로 제시됐다.

전쟁기에는 강제 동원과 불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 부분은 "태평양 전쟁기에는 강제 동원과 불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로 수정됐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 된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도 시장대로 명시됐다.

교과부는 삼의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한다. /최권일기자 cki@

고교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추가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강점기 여성단체 활동 등을 추가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을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지난 16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

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를 통해 학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징병 등 일제의 강제 동원과 일제강점기 여성 단체 활동에 대한 서술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집필기준 시안의 "태평양

뉴스 브리핑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

보건복지부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78만원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2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6000원 오른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독도 민간단체·연구기관 국비 지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 관련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련 연구조사나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전남개발공사 택지판매 2500억

전남개발공사가 설립 이후 최고의 택지판매 실적을 올렸다. 전남개발공사는 21일 을 부동산 택지 판매액이 2500억 원 규모로 공사 설립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32억 원(118만m²)보다 221%, 지난해 1253억원(27만m²)보다 200% 늘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J프로젝트 땅값분쟁 연내 해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둘러싼 땅값 분쟁이 연말 해결될 전망이다.

21일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민사 42 단독 이동식 판사)은 이날 열린 J프로젝트 구성지구(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1.87km²)의 민사조정(調停)안을 10일 이내에 통보키로 했다.

양측은 그동안 구성지구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대전·대구시 7개사업 확정

광주시와 대전시, 대구시는 내년도 대북거점도시